

대학 새내기들, 무슨 책을 어떻게 읽을까

학습프로그램의 목록으로 제시 ... 형식적 자료에 그칠 우려

대학 입학철을 맞아 새내기들의 독서안내를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신입생 권장도서 목록이 각 대학에서 제시되고 있다. 한때 대학생들의 독서성향을 대표하던 '이념도서'로서의 '필독도서' 개념은 희미해지고 이제 '교양도서' '권장도서'라는 보다 유연한 지칭이 일반화되었으며, 그 내용에 있어

서도 다분히 고전도서로 회귀하는 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다.

80년대 각종 서클이나 학과, 단과대 학생회 및 총학생회 단위로 작성된 신입생 필독도서목록은 진보적 이념의 추구라는 면에서 학습 프로그램의 목록으로 받아들여져 학교 측에서 제시하는 추천도서목록과 크게 대비

되어왔다. 그러나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하던 '의식화도서'의 자치구는 사라진 것이 분명하다.

대신 그 자리에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거나 권위있는 교수들이 추천하는 도서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지난 시기 학생들의 적극성은 사라지고 학교측에서도 오래

된 목록을 반복할 뿐이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현대사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해방 전후사의 인식》(한길사)을 비롯, 각국의 혁명사나 경제사를 다룬 책들이 사라지고, 《역사란 무엇인가》(E H 카)나 《철학에세이》 등은 70년대 이후부터 여전히 교양도서 목록의 한구

각 대학의 교양도서 추천목록

| | | |
|----------------------|--|---|
| <p>서 예 대</p> | <p>현대문예학 개론, 허창운, 서울대출판부/세계의교사, 김용구, 박영사/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A. 하우저, 창작과비평사/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스펀터, 삼성출판사/세계문학 속의 동양사상, 김현창, 신아사/한국사특강, 한영우 외, 서울대출판부/문화의 수수께끼, 마빈 헤리스, 민음사/한국사회사 연구, 이태진, 지식산업사/소사회화와 역사학, 피터 버그, 한울/중국근대사론, 민두기, 지식산업사/사회학과 마르크스주의, 전병재, 한울/서양사개론, 민석홍, 삼영사/제3세계 사회발전 논쟁, 이각범, 한울/유럽현대사, 리히트하임, 백산서당/시간의 역사, 호킹, 삼성출판사/한국미의 탐구, 김원룡, 열화당/여성과 생산양식, 안 마리울, 한겨레/서양철학사, 램프레르트, 을유문화사/미술의 역사, 김윤수 외, 삼성출판사/철학이야기, 튜란트, 문예/프랑크푸르트학과, 신일철, 청람논단/세계종교사, 존노스, 현음사/일차원적 인간, H.마르크제, 삼성출판사/동양의 과학과 사상, 김용운, 일지사/20세기 이데올로기와 문학사상, 정명환, 서울대출판부/역사란 무엇인가, E.H. 카, 청년사/한국현대문학 비평사, 김윤식, 서울대출판부/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 흥성사/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릭 프롬, 삼성/현대문학비평의 방법론, 김치수 외, 서울대출판부/정신분석입문, 프로이드, 삼성/이성과 현실, 유승국, 박영사/한국근대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 신용하, 서울대출판부/서양미술사, 곰브리치, 열화당/노자와 도가사상, 김학주, 명문당/예술가와 역사의식, 최중태, 지식산업사/목자 그의 사상과 목가집단, 김학주, 민음사/문학과 자기성찰, 이상욱, 서울대출판부/80년대 우리문학의 이해, 김윤식, 서울대출판부/해방공간의 문학사론, 김윤식, 서울대출판부/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민음사/괴테의 파우스트와 그 문학세계, 강두실, 성대출판부/언어개론, 남기스 외, 탑출판사/현대미학의 향방, 김문환, 열화당/마르크주의 미학사상, 김문환, 문예/마르크스주의와 예술, 오병남 외, 서광사/현상학과 예술, 오병남 외, 서광사/카프카의 비평, 김재홍, 서울대출판부/문화의 패턴, 루스 베네딕트, 까치/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스키너, 탐구당/인간과 자연환경, 손일, 명보출판사/한국민족주의의 정치학, 이정식, 한밭/국제정치사상가들, K. 톰슨, 종로서적/국부론, 아담 스미스, 종로서적/과학철학과 한국경제의 인식, 박우희, 한국경제신문사/현대한국과 종속이론, 임현진, 박영사/한국의 민주정치이식, 김광웅 외, 박영사</p> | <p>이 화 여 대</p> <p>성학십도, 이황, 을유문화사/목민심서, 정약용, 창작과비평사/동경대전, 최제우, 을유문화사/매천야록, 황현, 한양/조선상고사, 신채호, 인물연구소/노자도덕경, 노자, 삼성/여씨춘추, 여불위, 민음사/삼민주의, 손문, 명지대출판부/국가론, 플라톤, 삼성/군주론, 마키아벨리, 까치/방법서설, 데카르트, 서광사/시민정부론, 존 로크, 연대출판부/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일신서적/국부론, 아담 스미스, 동아출판사/순수이성비판, 임마누엘 칸트, 그레이트북/역사철학강의, 프리드리히 헤겔, 동풍/미국의 민주주의, 알렉시스 드 토크빌, 한길사/종의 기원, 찰스 다윈/자유론, 존 J. 밀, 서광사/자본론, 칼 마르크스, 비봉출판사/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문예/정신분석입문, 지그문트 프로이드, 배직서관/인간과 무의식의 상징, 칼 구스타브 융, 집문당/일반언어학 강좌, 페르디낭 드 소쉬르, 민음사/일반언어학의 제문제, 에밀 벤트니스트, 민음사/구조주의, 장 피아제, 민음사/존재와 시간, 마르틴 하이데거, 시간과공간사/창조적 진화, 앙리 베르그송, 박영사/슬픈 열대, 레비스트로스, 삼성/매트로 폰트의 지각의 현상학, 모니카 랭어, 청하/비트겐슈타인, 서광선 편역, 이대출판부/미학이론, 테오도르 아도르노, 문학과지성사/일차원적 인간, H. 마르크제, 삼성/인식과 관심, 위르겐 하버마스, 고려원/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 이대출판부/성의 역사, 미셸 푸코, 나남/정의론, 존 롤즈, 신유/성과 속, 엘리야데, 함민사/부분과 전체, 하이젠베르크, 지식산업사/제2의 성, 시몬느 보브와르, 을유문화사/미메시스, 에리히 아우에르바하, 민음사/문학이란 무엇인가, 장 폴 사르트르, 문예/비평의 해부, 노드롭 프라이, 한길사/공기와 꿈, 가스통 바슐라르, 민음사/소설의 이론, 게오르그 루카치, 심철당/문학의 예술의 사회사, 아놀드 하우저, 창작과비평사/숨은 신, 루시앙 골드만/사랑의 단상, 롤랑 바르트, 인동/물질문명과 자본주의, 페르낭 브로델, 까치/시란 무엇인가, 유종호, 민음사/민족문화와 세계문화, 백낙청, 창작과비평사/한국문학의 위상, 김현, 문학과 지성사/문화와 기호, 한국기호학회, 문학과지성사/언어와 이데올로기, 올리비에 르블, 역사비평사/테라다의 해체철학, 김형효, 민음사/포스트 산업사회, 프레드 블러크, 법문사</p> |
| <p>한 양 대</p> | <p>고백록, 성 아우구스티/탈무드, M. 토게이어/빛 속에서, 미우라 아야코/불교를 알기 쉽게, 서중범/원효사상, 이기영/동경대전, 최제우/성과 속, 엘리야데/청빈의 사상, 나카노 고오지/도덕적 인간과 부도덕한 사회, 라인홀트 니버/릴케의 생애와 학문, 이상은/삼민주의, 손문/생활의 발견, 임어당/광세, 파스칼/철학이야기, 윌 듀란트/인간의 본질에 관한 7가지 질문, 스티븐슨/꿈의 해석, 프로이드/진리와 방법, 한스 가다머/역사와 계급의식, 루카치/소유나 존재나, 에릭 프롬/일차원적 존재, 마르크제/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스키너/예술의 의미, 허버트 리드/예술과 사회, 아놀드 하우저/문화이론입문, 테리 이글턴/한국회화사, 이동주/동양화 읽는법, 조용진/한국음악논고, 송방송/인간과 음악, 백대웅/예술로서의 영화, 랄프 스티븐슨/한국과 일본 문화, 이진희/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문화의 수수께끼, 마빈 헤리스/영상 커뮤니케이션과 사회, 존 버거/구조주의와 기호학, 테렌스 호옥스/광기의 역사, 미셸 푸코/한국근대사, 강만길/아리랑, 님 웨일즈/역사 앞에서, 김성철/한국전쟁의 기원, 브루스 커밍스/돌베개, 장준하/닥터 노면 베키, 테드 알렌/중국현대사, 사에키 노부라/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역사의 연구, 아놀드 토인비/플루타크 영웅전, 플루타크/옥중수고, 안토니오 그람시/열린 사회와 그 적들, 칼 포퍼/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미디어의 이해, 마셜 매클루한/소비의 사회, 장 보드리야르/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카프카/생명이란 무엇인가, 슈뢰딩거</p> | <p>성 관 대</p> <p>매월당집, 김시습/열하일기, 박지원/임궏정, 홍명희/삼대, 염상섭/김소월 전집, 김소월/윤동주 전집, 윤동주/정지용 전집, 정지용/이백 시선, 이백/두보 시선, 두보/삼국지연의, 나관중/아큐정전, 노신/천일야화/일리아드 오디세이아, 호메로스/오이디프스왕, 소포클레스/햄릿·오델로·리어왕·맥베드, 셰익스피어/수상록, 몽테뉴/광세, 파스칼/모비딕, 멜빌/약의 꽃, 보들레르/아버지와 아들, 푸르케네프/안나 카레니나, 톨스토이/인형의 집, 임철/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루스트/마의 산, 토마스 만/구토, 사르트르/이방인, 까뮈/대승기신론소, 원효/퇴계집, 이황/율곡전서, 이이/성호사설, 이익/목민심서, 정약용/도덕경, 노자/한비자, 한비자/생활의 발견, 임어당/국가, 플라톤/유토피아, 토마스 모어/군주론, 마키아벨리/방법서설, 데카르트/정부론, 존 로크/사회계약론, 루소/도덕형이상학의 기초, 칸트/역사철학, 헤겔/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창조적 진화, 베르그송/서양의 지혜, 러셀/일차원적 인간, 마르크제/삼국사기, 김부식/삼국유사, 일연/매천야록, 황현/조선상고사, 신채호/사기, 사마천/삼팔사략, 중선지/역사, 헤로도토스/역사연구, 토인비/역사란 무엇인가, E.H. 카/국부론, 아담 스미스/미국의 민주주의, 토크빌/종의 기원, 찰스 다윈/자본론, 칼 마르크스/가족·사유재산·국가의 기원, 엥겔스/신교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 막스 베버/정신분석입문, 프로이드/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릭 프롬/생명이란 무엇인가, 슈뢰딩거/중국의 과학과 문명</p> |
| <p>고 려 대</p> | <p>그리스 로마 신화, T. 벌핀치, 집문당/파우스트, 괴테, 흥신문화사/짜라마조프의 형제들, 도스도예프스키, 어문각/분노의 포도, 존 스타인 백, 동서문화사/백년동안의 고독, G. 마르케스, 문학사상사/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 열린책들/시와 시론, 한국시문학회, 탐구당/태평전하, 채만식, 삼성출판사/한국문화사서설, 조지훈, 탐구당/사기, 사마천, 신태양사/대화, 플라톤, 종로서적/서양의 지적 전통, J. 브로노프스키, 흥성신서/공산당선언, K. 마르크스, 백산서당/사회경제사, 막스 베버, 삼성출판사/과학과 근대세계, 화이트 헤드, 서광사/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 J. 스펀터, 삼성출판사/야생의 사고, 레비스트로스, KBS사업단/삼국유사, 일연, 서문문화사/동양사상과 한국사상, 윤사순, 을유문화사/에로스와 문명, H. 마르크제, 나남/과학혁명의 구조, T. 쿤, 동화출판사/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 있어서의 권위와 불평등, B. 무어, 청계출판사/부국과 빈국, 부란트 위원회, 나남/권력이동, 엘빈 토플러, 한국경제신문사/한국현대사회사상, 신용하, 지식산업사/삶과 일, 김태길, 정음사</p> | |

석을 차지하고 있다.

접근 어려운 고답적 목록

서울대의 경우,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신입생의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위해 마련한 소책자 《대학생활의 길잡이》를 통해 인문·사회·자연·경영·사범대 등 단과대학의 특성에 맞는 50종 안팎의 교양도서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목록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대부분 신입생들이 교양과정에서 배우는 교과목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거나 오래된 판본을 답습하고 있는 것들이어서 목록 자체의 완성도나 시기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일게 한다.

이밖에 서울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지난 94년 “고전읽기의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교양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들의 인문적 소양을 확대”한다는 취지 아래 선정·발표한 ‘동서고전 200선’은 접근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은 고답적인 고전목록이어서 실제 대학생들의 주의를 끌기보다는, 오히려 대입 논술과 관련해 ‘고전에 대한 대한 지침서 안내서’의 이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도 고전추천위원회를 구성, 교내 전교수들의 2차에 걸친 추천을 받아 “젊은 세대들에게 고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고전을 읽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교양고전 100선’을 선정했고, 성대 출판부에서 해제를 실어 단행본으로 출간한 바 있다.

입학철을 맞아 신입생들의 독서안내를 위한 여러 형태의 권장 도서목록이 대학마다 제시되고 있다. 80년대 풍미하던 진보적 이념도서 개념은 희미해지고 ‘교양’의 유연한 목록들이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목록 선정의 주제나 과정이 애매하고, 학생들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목록들이 많은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고려대의 경우에는 신입생 학사안내 책자의 부록에 문예, 역사, 사상, 현대사회 분야의 교양도서 목록이 간단히 실려 있을 뿐, 언제 누구에 의해 추천된 목록인지 모호한 부분이 많다.

한편 이화여대는 《지성인의 책읽기》라는 팸플릿 형식의 책자에서 12명의 본교 교수들로 구성된 교양도서 추천위원회 명의의 교양도서 목록을 마련해 신입생들에게 적극적인 독서지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각 전공분야의 특성에 따라 고른 250여권의 교양도서는 인간·종교·예술·철학·문학·사회·과학 등의 문제들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하며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여 당당하게 지적 논의에 참여하도록 인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양대는 선보인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꼭 읽어야 할 양서의 길잡이》라는 책자에서 일반도서 100선과 문학작품 100선을 교양도서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읽힐 수 있는 목록들에 주안점을 두고 구체적인 서지사항과 작품해제를 상세히 싣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학교·학생들의 열린 자세 요구

각 대학이 제시하는 추천도서에서 우선 눈에 띄는 문제점은 목록 선정의 주제나 과정이 모호하고, 선정위원회 명의로 이뤄진 추천도서의 기준과 원칙들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택되고 걸러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학교측에서 제시한 목록의 권위나

설득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목록의 내용도 이전의 자료를 답습할 뿐이거나 현시기 학생들의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지나친 고전 일색의 나열로 형식적 자료제시로 끝나버릴 공산이 크며, 많은 부분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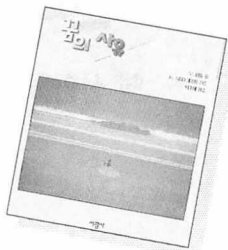
실제로 “입학 당시 학교측에서 받아보는 자료는 고등학교때 이미 논술 관련 교육으로 수차례 접해본 것들로서, 현실적인 세계관과 사회관의 확립에 도움이 될 만한 참신한 추천목록이 아쉽다”는 한 학생의 말은 이를 입증해준다. 비판적 대학문화의 성숙을 위해서 목록 자체의 다양한 개발과 학교와 학생들간의 열린 자세가 요구된다는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이정민 기자



각 대학마다 신입생들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을 내놓고 있다.

지혜로운 삶으로의 여행

“지혜로운 삶으로의 여행” 시리즈는 포토 에세이, 잠언, 명상 만화 등 거창하지 않으면서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접하기 쉬운 형태의 철학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방법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해 서광사에서 새롭게 마련한 기획입니다.



지혜로운 삶으로의 여행 1

꿈의 사유

M. 비켈 글 · H. 슈타이게르트 사진
박미애 옮김

● 16 x 18cm / 컬러 / 양장 / 각권 4,000원



지혜로운 삶으로의 여행 2

하늘이 머무는 먼 곳에

B. 보트 워움 · R. 쉐네몬트, H. 케르니히 사진
박미애 옮김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지혜로운 삶으로의 여행 3

나는 놀라워한다

율리히 샤파 글 · 사진
조정옥 옮김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